

세계 최고 한국 양궁의 전략은 원칙과 선제대응*

Observing Impartial Rules and Preparing in Advance are Key Points for Korea Archery Association, the Cradle of World Record

윤병선 _대한양궁협회

Youn, Byung Sun _Korea Archery Association

이현휘 : 안녕하세요. 제가 양궁은 잘 모르지만, 국장님 뵙고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양궁협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

* 서양 ‘근대혁명’의 요체를 막스 베버의 지배유형으로 표현하면 ‘전통적 지배’에서 ‘합법적 지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적 지배에서는 사람에게 복종이 이뤄지는 반면(obedience to some particular person), 합법적 지배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비인격적(impersonal) 규범 내지 규칙에 헌신하는 형태로 복종이 이뤄진다(obedience is given to the norms rather than to the person). 우리가 서양에서 도입한 각종 제도들, 예컨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언론, 교육 등은 반드시 ‘합법적 지배’를 전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혈연, 학연, 지연 등이 건재한데, 이는 전통적 지배에서 합법적 지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로 인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대신, 만성적 파행과 각종 부조리를 파생시키고 있다. 그런 한국 사회에서 ‘대한양궁협회’는 전통적 지배에서 합법적 지배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듯 대한양궁협회는 특정 스타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립한 시스템에 입각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한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 대한양궁협회는 합법적 지배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제도가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사회에 선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대한양궁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단체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진정한 ‘시민단체’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대한양궁협회가 묵묵히 축적한 성과와 추구하는 정신을 성원하고, 보호하고, 배우고, 자기 분야에 응용하면서 합법적 지배의 질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현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2016년 11월 22일, 대한양궁협회를 방문해서 윤병선 사무국장님과 약 2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이곳에 수록한다. 대한양궁협회의 사례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인터뷰를 허락하신 윤병선 사무국장님, 인터뷰 내용을 트랜스크립트 해주신 조진주 편집간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정치평론학회 편집이사, 이현휘.

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¹⁾ 그런데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약 30년 만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행해서 대한양궁협회처럼 정착시킨 사례를 목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어떤 ‘정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병선 : 스포츠는 정치나 경제 등과는 전혀 다른 분야여서 도움말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국에 양궁이 도입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0년도 안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양궁이라는 종목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으니까요. 본래 활과 화살은 인류의 생존무기로 출현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전쟁무기로 사용되었지요.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활을 쓰는 행위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같은 화약무기가 등장하면서 활과 화살을 더 이상 전쟁무기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궁이란 서양 활을 의미합니다. 통상 양궁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헨리 7-8세 때(1538년 경) 놀이나 게임 형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 동양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궁은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인종에 따라 상이한 활 쓰는 방법과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양궁은 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1908년 런던 올림픽 개최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1920년 제7회 벨

1) Cf. 이현휘, “고대 중세 시민의 역사적 전개: ‘호모 폴리틱우스’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이동수 편, 『시민은 누구인가』(인간사랑, 2013), 33-78. 이현휘, “19세기 한중일 근대화 비교: 지배양식과 삶의 운영원리를 중심으로,” 이동수 편, 『동아시아 근대와 시민의 미래』(인간사랑, 2017), 제1장, 근간.

기에 엔터워프 올림픽 이후 완전 중단되었지요. 그 후 1972년 제20회 뮌헨 올림픽에서 경기방법과 종목을 통합하여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은 일본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초창기 한국 양궁은 거의 일본 것을 답습한다거나 카피하는 수준에서 시작했어요. 한국 양궁이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양궁협회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궁이 대한궁도협회랑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활쏘기이니까요. 그러다가 1983년도에 국궁과 양궁을 분리하면서 현대라는 기업을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남이 한국 양궁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죠. 현대라는 큰 기업을 만나면서 한국 양궁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라는 기업과의 만남 그 자체라기보다 현대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한국 양궁에 긍정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1983년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대한체육회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선견지명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양궁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시면서 국궁과 양궁을 분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정으로 한국양궁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한국양궁은 독자적으로 생존의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양궁은 1978년도 방콕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1979년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김진호 선수가 5관왕이 되면서 한국 양궁이 세계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서 한국 양궁의 경쟁력을 간파하신 것 같고, 그래서 국궁과 양궁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한국 양궁은 1984년 LA 올림픽에서 기록 경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현대기업에서 집중 투자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양궁을 하나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면 스포츠의 성과는 무조건 투자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궁과 양궁 분리 당시 정주영 회장님을 양궁협회의 임시 초대 회장님으로 모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정주영 회장님께서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대한체

육회까지 말고 계셨기 때문에 양궁을 맡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회장님께 1대 양궁협회 회장을 맡기셨지요. 2대 회장은 정몽구 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회장님으로 계시죠. 제가 그 때부터 회장님을 모시기 시작했는데요. 정몽구 회장님의 협회 운영 스타일을 보면 아버지처럼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국 양궁은 해외에서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몽구 회장님께서 한국 양궁이 1984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국 양궁의 경쟁력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눈이 좋아야한다고 판단하셨는지 미국 출장 가셨다가 한국의 스포츠과학연구소에도 없는 첨단 장비를 사비로 사오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몽구 회장님께서 그 장비를 저희에게 주시면서 봉고차에 싣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수들의 시력을 측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장비는 시신경 반응기, 시력 측정기 등이었어요. 저희는 그때 처음 보는 기계였지요. 저도 시신경 반응기로 측정해 보았는데 눈에 쬐우면 프로그램이 막 움직이며, 그걸 내가 판단해서 측정하는 거였는데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고 결국 이 장비가 한국양궁의 최초 스포츠 과학화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부터 현대 그룹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장사의 기업정신과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라 봅니다. ‘현대에서는 지원만 한다. 경기력 개발이나 선수 훈련, 대회운영 등 모든 것은 경기인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대에서는 모든 지원(인력, 예산, 장소 등)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대그룹 회장님들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 후원을 해주시면서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현대에서는 경기인들이나 양궁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보고된 사항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회 책자나 인쇄물이 있으면 보통 광고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협회는 현대기업이 메인 스폰서이고 지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현대그룹 광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게 무슨 뜻이나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순수하게 양궁은 아마추어이고, 아마추어 스포츠를 지원하는 그룹에서 아마추어 책자에다 현대 기아차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었던 같아요. 저희들은 그 순수한 투자 지원에 고마운 거죠. '우리는 투자하고 지원한다, 운영은 경기인들이 해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1985년도에 정몽구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임원들 모아놓고 무조건 뭐든지 양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가능한 건 다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추진해보라. 꿈같은 상상이라도 좋다. 양궁협회에서 결정하고 양궁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해보고 허황될망정 검토하고 연구하라고 그러시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참 진짜 고마운 말씀이었지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도 회장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 주시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님이 솔직히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한 전천후 연습기를 개발해보라고 당시 현대정공이라는 회사에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양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합을 합니다. 비 온다고 연습 못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개발하신 것이 세계 최초 양궁 전천후 연습기였어요. 양궁은 전천후 경기라 실외에서 시합을 하는데 바람 불고 춥고 그럼 연습을 못하잖아요. 결국 실내에서도 언제나 연습할 수 있는 양궁 연습기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활 쓰는 효과가 똑같지만 유압식이라 화살은 발사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연습기를 판매나 영업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이익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 순수한 한국양궁발전을 위한 지원이셨던 거지요. 저희들은 이 연습기를 단순한 연습기로 볼 수가 없었지요.

결론적으로 지원과 운영을 분리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한국 양궁을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서 한국양궁이 잘한다 하지만 사실 한국 양궁만 가지고 있는 몰래 숨겨둔 기술이나 뛰어난 경기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 양궁은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등을 미리 예상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선제 대응'하는 습관을 정착시켰을 뿐입니다. 바로 이게 한국 양궁의 모토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조치, 방안, 대책 등을 연구 검토하여 실행하는 거죠. 솔직히 스포츠

에서 어느 종목이나 파별이라던가, 학연, 지연,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들도 양궁에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들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궁이라는 종목이 비교적 점잖은 운동이고, 그래서 선수들의 양보와 이해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연이나 지연 등에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해하고 설득 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러니까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선제대응이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으며,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 막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자가 의기투합하여 단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현대에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양궁인들이 선수를 키우고 육성하는데 불편 없도록 지원해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리를 맞댄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현휘 : 그 때가 몇 년도쯤이지요?

윤병선 : 1980년대 중후반 쯤 되는 거죠. 1984년 LA 올림픽 참가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도 대한양궁협회의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때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올림픽에 어떻게 나갈지, 선수를 어떻게 선발할지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대비한 선발전을 시작하면서 저희 양궁인들은 ‘원칙’이라는 개념에 착안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한번 정해 놓은 원칙은 지키자’라는 모토를 설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한 원칙은 지키자는 취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는 원칙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정해놓은 원칙 때문에 어려운 적도 많이 있었죠. 예컨대 1988년 서울 올림픽 선발전 때 김경욱 선수라는 당대 최고의 선수가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8년 뒤 개최된 애틀랜타 올림픽에 가서야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무려 8년을 기다렸죠. 사실은 우리가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지 않고 조금만 융통성을 허용했다면 김경욱 선수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김수영 선수가

1위를 했는데요.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만 만일 김경옥 선수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김수녕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김경옥 선수가 선발전에서 탈락한 이유는 당시 세계연맹에서 만들어 놓은 경기규칙을 100% 엄격하게 적용해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한 국내 선발전에서 아무런 융통성 없이 규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세계연맹규정을 100% 그대로 적용해 버린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융통을 못 부린 것이죠. 우리 내부에서 좋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심판은 원칙을 고수했고, 그래서 김경옥 선수가 탈락했습니다. 물론 선수도 억울하고, 우리 협회도 안타깝고 그랬지만, 규정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김경옥 선수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실수한 것은 사실이었죠. 양궁 경기에서 가끔 김경옥 선수와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선수가 쏜 화살이 표적에 박혀 있겠지요? 화살 세 발 쏘고 표적에 가서 화살 득점가를 기록지에 기록하고 화살을 뽑아야 하는데, 기록원이나 또는 심판이 체크해서 득점가를 기록하기 전에 화살을 뽑으면 절대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기록 전에 화살을 뽑으면 모두 0점 처리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김경옥 선수는 너무 흥분했는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화살 세 발이 모두 표적의 정중앙에 꽂히자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화살을 모두 뽑았어요. 그러자 표적지를 확인한 심판은 0점! 0점! 0점! 판정을 했습니다. 심판 판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선발전 끝내고 회의하면서 심판이 김경옥 선수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를 놓고서 토론까지 했어요. 선발전은 우리 내부에서 치러진 것이었고, 그래서 굳이 0점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내부 선발 규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저희 양궁협회에서는 공식 대회가 아니더라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야! 이렇게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런던 올림픽 때였는데요. 한국의 여자 양궁은 세계 최고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 남녀 각각 세 명씩 런던 올림픽

대표를 선발해서 훈련을 하었는데 그중에 여자 선수 한명이 진짜 컨디션 난조 내지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올림픽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완전 헤매고 있는 거였어요. 협회나 대표 지도자들은 비상이 걸렸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경기력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죠. 심하게 표현하면 중학교 수준이랄까? 급격히 경기력 저하로 팀 분위기도 망연자실이고 이대로 올림픽 가면 예선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그래서 내부에서 몇몇 분들은 이 선수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몇몇 분은 원칙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선수는 보통 6-7개월에 걸친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그 긴 시간동안 훈련과 자기 관리로 선발된 선수인데 갑작스런 컨디션 난조를 보이자 우리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리우 올림픽 끝나고 벌써 동경 올림픽을 대비한 선발전을 두 번이나 치렀습니다. 이번 선발전이 동경 올림픽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목표대회가 끝나면 다음 목표대회를 위해 바로 훈련에 돌입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컨디션 난조 또는 경기력 저하가 왔다고 선수를 교체 한다? 이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인데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이는 저 선수를 어떻게 런던에 파견하느냐? 설왕설래했죠. 하지만 아까도 1988년 서울 올림픽 선발전을 예로 들었는데요. 선수가 7개월 동안 선발전을 치르다보면요. 어느 날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걸 다 극복해야지 선발될 수 있거든요. 아플 때도 시합해야 되고, 비 올 때도 시합해야 됩니다. 선발전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궁협회의 선발전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그 선수가 선발전 과정에서 보였던 경기력을 믿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그 선수가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합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외국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파견나가 있는 한국 지도자들 모두가 한국 여자양궁의 연습경기를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입상 근처에도 못가는 실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이 크게 저하되어 화살이 중구난방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자 외국인 지도자들과 외국에 파견나간 한국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한국 대표 코치

들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야! 너희 왜 이래?’ 실제로 시합 들어가는 당일까지 그렇게 쫓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외국 선수들은 이번이 한국 양궁을 이길 기회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무리 연습 때 경기력을 숨기기 위해 장난을 친다고 해도 그렇게 못 쓸 수는 없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경기력이 최악이었던 그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님이 오셨다 할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선수 때문에 금메달을 땀어요. 세 선수중 제일 잘 쫓어요.

솔직히 협회는 표현할 수 없는 고민을 했죠. 원칙이냐? 융통이냐? 많은 갈등을 한 것은 우리가 이 선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국 양궁이 그 동안 쌓아온 명예로운 전통과 금자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고민한 거죠. 그래서 선수를 바꿔야만 하는 것도 맞고, 양궁 협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 즉 7개월 걸쳐 선발한 선수의 경기력을 힘들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국 양궁의 일대 위기라 판단한 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한국 양궁이 결과에는 만족할 수 없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상충하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결국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죠. 만약 실패했다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결론은 당시 상황에서 실패를 해도 원칙은 기본적으로 고수를 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융통을 전혀 부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의견이 원칙을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하겠죠. 하지만 저희의 기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제대응을 하되 원칙을 고수하다는 것은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개의 길을 합침으로써 큰 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국 양궁의 원천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대표선수 선발전이나 국내 대회를 치르다보면 학연, 지연, 심지어 혈연이

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은 있어요. 심판도 서울지역, 부산지역 등 전국 어디서든 임명될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양궁선수생활을 부산에서 했다고 한다면 수년간 지역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지역에 애착이 가겠죠. 그러다 은퇴해서 심판자격을 따서 심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심판으로 배정되어 심판을 보는데 부산 선수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없을까요? 이럴 때 협회에서는 심판의 그런 고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버립니다. 심판이 갈등을 느끼지 못하도록 심판의 연고지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간단한 예이고요. 저희는 심판배정을 할 때 심판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어느 심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판실에서는 오늘 몇 시, 몇 번 표적은 A 심판, 이런 식으로 고지합니다. 그러나 매 경기마다 심판은 로테이션이 됩니다. 언제 누구로 바뀔지 모릅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심판도 있고, 싫어하는 심판도 있거든요. 선수의 선입견으로 어떤 심판이 나를 잘 봐주는 것 같고, 어떤 심판은 까다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느 심판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겠죠. 오히려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경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양궁협회 자랑을 하나 한다면 부서별 운영 매뉴얼을 모두 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종목 중에서 심판부, 경기부, 운영부, 기록부 각각의 매뉴얼은 아마도 한국 양궁에서 처음 만들었을 겁니다.

이현휘 : 아하! 매뉴얼까지 만드셨군요!

윤병선 : 아마 우리가 만들어 놓은걸 보고 여타의 많은 종목에서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지진 이런 것이 약하지만 저희는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상하고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부서별로 유사시 취해야 할 행동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협회를 운영하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선발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스포츠 구성원이나 일반 사회인들은 양궁 협회에서 어떻게 선발전을 치르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한국 양궁에서 운영하는 선발전 체계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뽑는데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전 규정을 정비하는 일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발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최근에는 학연, 지연, 같은 소속팀, 선후배 등등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저주기’ 등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종목에서 발생하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저하고 교수님하고 같은 팀인데, 나는 이제 거의 100% 선발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교수님은 두 게임만 이기면 선발되고 세 게임 지면 탈락한다고 가정해볼 때, 그럼 내가 한 게임 저취도 되잖아요. 내가 선발되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차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수가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희는 같은 소속팀 선수끼리는 반드시 1회전에 게임을 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선발전의 첫 게임에서 지는 선수는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내가 선발될지 상대가 선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주고 싶겠습니까? 같은 소속팀 선수라도 1회전에 경기를 해야 한다면 죽기 살기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경기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나의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런 내가 굳이 상대 선수를 물고 늘어질 일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런 상황을 다 예상해보면서 선발전 방법을 만듭니다.

저희 양궁협회 운영방식은 다른 종목의 운영방식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종목의 협회도 어떤 국제대회나 그 밖의 대회에 참가하면 대표자 회의라는 것을 해요. 일반적으로 대회관련 경기시간이나 참고사항을 알려주고 특이사항을 통보하고 선수단끼리 인사하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양궁은 다른 점이 있어요. 본부에서 경기 규정이라든가 대회 운영 규정을 모두 발표합니다. 다 오픈시키죠. 그런 다음 ‘자, 여기서 잘못된 것,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합니다. 물론 주최 측이 의견 수렴해서 수정하려면 힘들고 짜증나죠. 그래도 모든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현장에 물어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지도자, 반대하는 지도자가 있죠. 저희는 거의 만장일치로 해결합니다. 물론 백 명이 참가했는데 백 명이 다 좋다고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수도 충분한 다수가 되어야지 만일 50:50으로 의견이 나뉘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49:51이면 51이 옳다고 결정하지 않아요. 다시 의견을 수렴하죠. 즉시 현장에서요.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요. 일단 소수 의견이라도 좋은 것이라 판단되면 현장에서 수정 보완해서 절충안을 찾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에게선 어떤 ‘공감대’가 사전에 존재합니다. 한국 양궁의 경기력을 대표하는 선수를 뽑는 과정이거나 대회 챔피언을 가리는 시합인데 잘못 된 부분이 있거나 선수들이나 특정 팀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 하에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갑니다.²⁾

양궁 자체가 유럽, 특히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탄생한 것이라 신사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에는 못 미치지만 49명의 의견을 존중해주다 보면 어렵지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서로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죠. 저희가 리우 올림픽 끝나고 벌써 두 번 선발전을 했어요. 올해 9월 달에 선발전을 했고 11월에 선발전해서 2번을 했어요. 11월 선발전을 할 때 작년과는 규정이 조금 수정되었죠. 왜냐하면 작년 선발전 당시 수정 보완해야 할 조항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상황이 바뀌고 조금씩 수정 보완 될 부분이

2) 대한양궁협회에서 토론 이전에 어떤 ‘공감대’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민주적 토론을 가능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감대가 사전에 조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현명한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린제이(A. D. Lindsay) 역시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려면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토론 공동체 전체의 공적 가치에 헌신하는 토론정신(the sense of the meeting)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미국의 민주적 토론정신,” (사) 한국정치평론학회 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그 위기』(인간사랑, 2013), 383-390.

있는데도 우리가 수정을 못하고 그냥 진행했을 경우에 어떤 선수든 누군가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냥 진행해도 관계는 없어요. 없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선수를 뽑는데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메모해 놓고 내년 선발전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선발전 방법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선발전 방법이 20년 이상 현장의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다만 방법은 반드시 미리 오픈합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선발전 방법대로 연습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궁협회 선발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³⁾

이현휘 : 야! 정말 감동적이군요! 런던 올림픽 사례를 들을 때는 눈시울이 적셔질 정도였습니다.

윤병선 : 그런가요? 그 선수 시집가서 얘기 놓고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본인도 알아요. 그때 모두가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머리에서 지진도 나고, 교체하느냐 마느냐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당연히 무슨 교체냐면서 말이 안 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반면 저희들은 전체 한국 양궁을 컨트롤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체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왔던 부분은 있으니까 믿어보자 그랬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었죠. 물론 런던 현장에 가서도 시합 전날까지 저희들 진짜 딜레마에 빠졌어요. 최악의 양궁 경기다 싶었는데, 그 선수가 제일 잘했지요. 믿고 신뢰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선수가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래서 다른 양궁인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다른 종목 회장님이나 집행부 같았으면 벌써 어떤 방법으로도 교체했을 거라고 그럼

3) 대한양궁협회의 선발전이 20년 이상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꾸준히 진화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불멸의 의사진행규칙으로 정착한 『로버트 의사진행규칙』(*Robert's Rules of Order*) 역시 약 100여 년 동안 수많은 독자의 피드백을 성실하게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미국의 민주적 토론정신,” 392. Henry M. Robert III et al., “Introduction” in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11th ed. (Boston: Da Capo Press, 2011), xxxvi-xlvi.

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젊고 생각이 매우 진취적이고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님이시거든요. 정몽구 회장님 아드님이죠. 나이가 젊으신 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진취적이세요. 현장 의견을 많이 믿어주시는 스타일입니다.

이현휘 : 런던올림픽 때는 정몽구 회장님이셨습니까?

윤병선 : 정의선 회장님이시죠.

이현휘 : 네, 알겠습니다.

윤병선 : 그런 모습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지요. 어떤 개인 때문에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내가 한국 양궁의 대부다, 내가 한국 양궁의 증인이다, 내가 한국 양궁을 총 지휘했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사실은 현장 지도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현장 지도자들이 조금 힘들지만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고 같이 애써준 덕분이고 그런 게 한국 양궁의 오늘을 만든 거지요. 물론 회장사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지도자, 협회, 회장사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화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거기에 원칙 고수와 선제대응이 있었어요.

이제 선제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북경 올림픽 준비할 때 태릉선수촌에 북경 올림픽 경기장이랑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통천으로 경기장 그림을 만들고 소음이나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 목소리까지 복원해서 연습 때마다 경기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당시에 처음 이런 제안을 하였을 때 일부에서는 쓸데없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통천 그림에는 야유하는 관중의 표정까지 그려 넣었죠. 아나운서 멘트는 중국의 전문 아나운서 목소리 그대로 다운 받아다가 우리 선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연습 때마다 이걸 듣게 했어요. 활을 당기면 야유하는 소리나 점수에 대한 아나운서 멘트가 다 나오도록 했죠. 그렇게 준비하고 북경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북경 현지에서 저희 캠프와 똑같

은 훈련 캠프를 차려놨어요.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인데요. 무조건 현지 적응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경 올림픽에서 실패했잖아요. 저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메달 3개 이상 못 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선제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눈에 쏘는 거 있죠? 전자 레이저요. 또 호루라기 부는 것. 저희는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양궁 자체가 신사적인 운동이고 그래서 상대 선수가 활을 쓸 때는 음악도 멈춰주는 그런 국제적인 예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중국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레이저를 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 응원단도 많이 갔지만, 그 많은 중국 응원단이 체계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중국도 자국 올림픽이니까 메달을 따야한다는 욕심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저희가 선제대응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올림픽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레이저 쏘고, 호루라기 불면서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야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느끼고 야구장 소음 훈련 등을 강화했습니다. 즉 수많은 악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야간산행, 공동묘지 걷기 등 수많은 특별훈련이 개발되고 강화되었어요. 아마도 양궁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정신력 강화훈련은 북경 올림픽 훨씬 이전부터 했어요. 그 이후 다른 종목도 많이 따라했을 겁니다. 예고 없이 새벽 2시에 벨 울려 어리둥절할 때 새벽 극기 훈련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태릉선수촌에서도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선제대응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경기방법이나 운영방법은 많은 예상과 상상력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거죠.

선제대응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는 런던 올림픽이 끝나는 날 저녁에 회식을 했거든요. 선수하고 다 같이.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준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때 회장님께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아마 다른 종목 관계자한테 그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협회 회장님께서 현대그룹이라는 대기업 회장님이라서 가능한 얘기가 많습니다. 정의선 회장님께서서는 브라질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 3명을 런던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 다음날이에요. 불러가지고 리우 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갈 거니까 현장조사, 숙박, 교통, 안전, 모든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 하도록 지침을 내리셨지요. 저희는 그때부터 리우 올림픽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지에 전지훈련 갈 때도 현대 법인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특히 안전문제, 기후, 풍토 등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이전에 정의선 회장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더 쉬운 얘기로 우리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강력하게 피력하신 것으로 기억 돼요. 즉 선수 안전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양궁 선수단 파견 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하셨어요. 브라질 현지 치안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아시고요. 선수들을 참 아끼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맙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걸 여담인데요.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 안전이 중요하다. 만약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리우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그에 상응하는 뒤는 봐 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말씀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지도자, 협회, 선수 모두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무후무한 전 종목을 석권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 종목 석권, 이거 불가능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혼성단체라는 종목이 추가될 예정인데, 전 종목 석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 종목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것이지요. 리우 올림픽에서 목표를 이루었지만,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북경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노렸지요. 하지만 실패했고, 다시 런던 올림픽에서 이루려고 했는데, 남자 단체전에서 지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번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양궁이 정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과 배가된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전 세계에 나가있는 한국출신 양궁 코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기

술을 비밀로 숨길 수 없고, 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오픈합니다. 우리 대표 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외국의 양궁 강국에 나가있는데요. 우리의 훈련기술을 비디오로 찍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운동 방법 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강점이 있어서 다행인 것도 있습니다. 절실히 꼭 이루겠다는 강렬한 의지! 우리 선수들이 가진 이런 정신적 요소가 외국 선수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저희들의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야구장 훈련, 경릉장, 경륜장, 야간산행, 폭염훈련, 비상훈련 등등

그중에서도 야간산행 훈련으로 제주도 1100번 도로 훈련이 있는데, 이 산행이 조금 특별합니다. 제주시에서 저녁 8시 경에 출발해서 밤새워 약 11시간 걸어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까지 갑니다. 한겨울 가로등도 없는 야밤에 도로를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실 협회에서 이 훈련을 기획했지만 겁도 많이 났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선수들이 그래요. ‘이 훈련을 해가지고 양궁 활 쓰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대답하기가 막막하죠.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겨울 야간에 그냥 아스팔트길과 산길을 넘어가는 건데요. 천백고지를 걸어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단 차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한명을 보내고 약 10-15미터 정도 간격을 두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서요. 손전등 하나, 호루라기 하나, 비상식량 하나 주고, 앞뒤로 차가 호위해주고, 그것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애들이 진짜 쉬운 얘기로 이게 무슨 ‘개떡’ 같은 훈련이고, 양궁선수에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해요. 그 순간이 이 훈련의 절정이죠. 지도자들과 협회의 모두 사람이 선수 달래기에 정신이 없지요. 당연히 지도자들도 함께 걸어야죠. 그렇게 해서 중간 기착점이 1100번 도로 휴게소인데,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3시간 40분? 늦으면 5시간, 6시간 넘게 걸립니다. 저희는 출발할 때 각 선수에게 공통 과제를 부여하죠. 처음 한 시간에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마음대로 욕하고 하고 싶은 데로 다해라. 저희들이 숙제를 준거지만 그걸 하는지 안하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선수들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참 기가 막히게 과제를 주셨네요!’ 처음에는 자동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추운 한 겨울에 가로등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왜 혼자 견게 하는지, 평생 할 욕 다한다고 그래요! 하하하하하! 그리고 다음 과제로는 부모형제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또 한두 시간 걷고 나면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에 대한 희망, 또 양궁을 하는 의미, 조금 더 가면 주변에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부모님 생각을 해라, 이런 과제를 줘요. 그걸 안 해도 우린 몰라요. 본인들이 그냥 생각해볼 문제예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들 답변합니다. ‘카! 어떻게 그걸 시간단위로 그렇게 맞춰놨어요?’ 조금 더 가면 회한 내지는 한숨이 나오고, 후회 막급한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쉬는 시간에 코코아나 라면 하나 끓여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부모 생각하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걸으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한 여자애가 생각나는군요. 지금은 결혼했는데요. 걸다가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생기고, 발목을 다쳐서 응급차에 태우려고 했더니 자기가 이걸 타면 대표 선수로 선발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기 싫다는 생각에 오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선수들의 생각이 달라 집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서울 정도로 강인한 근성과 정신력이 배양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병대 3박 4일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해병대 훈련에 보낸 적이 없어요.

해병대 말고 UDT_seal이라고 있어요. 진해에 있는데 특수여단입니다. 한 번은 저희 선수들을 그곳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시 남자선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훈련 안 받겠다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지마라 그랬습니다. 이 훈련에서도 선수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양궁선수한테 이런 극기 훈련을 시킵니까? 그런 선수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걸 해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체득한 성취감 때문에 경기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고요. 그게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 녀석들이 도망 나와서 여관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상별위를 열어 훈련불참 남자 선수들 전부에게 자격정지를 주고, 2진 선수들을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했죠. 2진 선수들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모두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올림픽 메달 따고 나서 병역면제를 받은 선수들이 극기 훈련을 거부한 거죠. 그러나 여자 애들은 끝까지 훈련을 다 받았어요. 거기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죠. 진해 그 하수구 기어서 시체 안치실에 가서 시체하고 같이 피자를 먹습니다. 또 IBC 고무보트 메고 조교를 태워서 등산하면 IBC가 바닷물에 있어야지 왜 산에 갑니까? 애들이 목 디스크 걸렸다는 등의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겪고 난 애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988년 서울 올림픽 선발전 때 화살 3발을 먼저 뽑아서 떨어졌던 김경옥이 당시 여자 선수 주장이었어요. 이런 훈련을 양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종목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훈련, 극기 훈련, 정신훈련 등을 많이 할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자리에 가만히 앉혀놓고 듣기만 하는 정신훈련은 솔직히 효과 없을 듯싶어요. 정신훈련만 하면 뭐합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정신과 심리는 조금 다른 듯해요. 학문적으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양궁에서는 두 분야의 전문가가 선수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휘 :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이 협회에서 선수를 지도하시고 운영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윤병선 : 관리는 회장님 이하 이사진과 협회 직원들이 하십니다. 각 파트별로 일을 하시지요. 이사 분들은 28명 계시지요.

이현휘 : 그 분들이 선수를 실제로 지도하고 관리하시나요?

윤병선 : 선수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따로 있어요, 대표팀 지도자가 따로 있고요. 협회 이사회에서 각급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추인해서 집행토록 하는 구조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사회에 올려주면 검토하고 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행하죠. 체육단체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현휘 : 그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윤병선 : 저희 이사가 28명이예요, 28명.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현휘 : 그 28명분들은 대개 양궁을 실제로 하셨던 분들이죠?

윤병선 : 네 지도자들이죠. 거의 대부분

이현휘 : 지도자이시면 양궁을 장기간 하셨겠네요?

윤병선 : 그런 사람도 있고, 초보자도 있습니다. 경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도 있고, 경력이 아주 짧은 사람도 있고, 젊은 이사도 있어서 신·구 지도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현휘 :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양궁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신사적이고, 또 그래서 매너를 잘 지키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양궁을 오래 하신 선수에게는 것처럼 신사적인 문화도 몸에 배어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윤병선 : 종목 자체의 특성상 양궁 경기방법에 들어가서 보면 매너라는 것을 안 지키면 혼자만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단체전 경기를 한다던가, 개인전 경기를 할 경우 기록경기지만 예측게임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수 기록을 보면 입상가능성 뭐 이런 거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한 거예요. 기록경기가 매치경기로 경기방식을 채택했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LA 올림픽 때 서양순 선수가 금메달 딴 경기방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국가 대표선수 아무나 나가도 되요. 과장되긴 했지만, 기록경기인 양궁이 비인기 종목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TV나 언론매체나 시청자나 관중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매치게임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듯 매치게임으로 바뀌면 한국이 불리한건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인거고, 한국 양궁에는 불리하지만 우리는 찬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응하면 되는 거니까요. 선제대응을 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되는 거지요. 논리는 간단하단 말이지요.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내가 적응하여 정복하면 내 것이잖아요. 세계양궁연맹에서 경기방법을 계속 개발하여 바꾸는 것은 양궁이 스포츠로서 올림픽 종목으로 재미있고 시청자나 관중에게 어필하고자하는 것이지요. 결국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스포츠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록 합산하는 더블라운드 방식에서 그랜드 라운드로 다시 올림픽라운드로 바꾸는 거죠. 스포츠로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일각에서는 한국 양궁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경기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불리한건 사실이지만 그걸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생각하면 아주 쉽죠. 물론 말하는 건 아주 쉽게 하지만 저게 우리한테 안 맞는다고 시험 안합니까? 예전에 처음 그랜드 피타 방식이 만들어 졌을 때 이 방법은 일정한 비율로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마지막에 8명이 결승라운드를 하는데 한국 양궁이 아마도 처음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호주 아텔라이드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 방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출진했다가 전패한 적이 있어요. 개인전, 단체전 다 합쳐서 4등을 한 게 제일 잘한 성적이었죠. 한마디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지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한두 번 실수해도 그 다음에 잘 쏘면 이긴다는 가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한두 발 실수하면 내가 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간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경기 방식을 바꿀 경우 세계연맹이 한국에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도 찬성합니다. 우리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고, 양궁이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성행할 것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양궁이 살기 위해서는 매스컴, 시청자, 관중 등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맞물려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수용하고 그걸 허용하는 거죠. 불리하다고 반대한다면 절대 발전할 수 없지요. 먼저 선제대응해서 방법을 이해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현휘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문제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것처럼 신사적인 양궁을 오래 하다 보면 겸손하고, 공적인 규칙

을 준수하고, 그 규칙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습관이 부지불식 간 몸에 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병선 : 많이 배어 있지요. 훈련 중에도 그렇고요.

이현휘 :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협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회의하실 때도 조정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좋은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즉 양궁의 신사적인 매너가 대한양궁협회의 합리적 운영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식 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운영되는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병선 : 그렇지요. 그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이 종목 자체가 발생한 곳이 영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것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경기 방법 자체가 1:1경기를 할 때 A선수가 쏠 때 B선수의 팀 선수, 임원들, 응원단 등은 조용히 해 주는 것이 매너인거죠. 규정에 응원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 양궁 규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공인 제품이 없어요. 알아서 해라죠. 즉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활’이라는 개념에 맞으면 활이에요. ‘화살’도 똑같아요. 화살도 화살이라는 개념에 맞으면 화살이에요. 다른 종목은 상상을 못해요. 뭐냐면 화살은 활의 장력에 의해서 쏘아지면 날아가는 게 화살이잖아요. 그 개념에 맞으면 화살인거예요. 2M짜리 화살을 쏘든 알루미늄이든 카본이든 자신에게 맞으면 사용하라는 개념입니다.

이현휘 : 아하!

윤병선 : 활은 당겨서 그 장력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표시도 없어요. 활이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다란 개념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쇠 활을 들고 나오든, 20m 되는 화살을 들고 나오든 괜찮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율적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장비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거의 획일화 되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방법에 맞는 활을 개발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방식에 최적화된 활이 개발된 거죠. 응원을 하다가도 선수가 활을 들고 쏘려고 하면 응원을 멈춰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렇다고 임의로 멈춰라 한다든가 통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올림픽 때 비신사적 행동이 나온 거죠. 북경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쏘려고 할 때 중국 응원단이 레이저 쏘고 호루라기 불어버렸으니까요. 호루라기를 부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를 방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화살을 당기면 길이를 측정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크리카라고 하는데, 그것이 딱 떨어지면 화살을 쏘요. 항상 똑같은 길이를 당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떨어지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그런 식으로 방해를 받았습시다. 양궁 응원 문화에서는 반대 선수가 있으면 ‘와~’ 하다가도 쏠 때는 잠시 멈춰주거든요. 쏘는 시간 10초도 안 걸립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쏘 다음 9점 맞아도 ‘워~’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쏠 때만 큼은 선수가 충분히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배려를 하라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있는 거죠. 양궁은 신사적 스포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현휘 : 그런 건 다 영국에서 스포츠랑 같이 들어온 것이겠네요?

윤병선 : 양궁이 스포츠로서 시작된 것은 그렇지만 규정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근대에 와서 명문화 되었겠지요.

이현휘 : 영국에서 그런 식의 규정은 없었더라도 영국에서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윤병선 : 아하, 그 당시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1500년대에 시작된 거니까요. 아마도 놀이문화 정도의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연맹이 결성된 건 1931년이예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8개국 이 모여 총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었지요. 거기서 초안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변화를 거듭하

여 왔겠지요. 세계연맹은(WA-종전 FITA)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데, 아마 한 20년 이상 수정, 보완,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정리된 거지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규정까지는 없었고, 거리도 틀리고 경기방법도 틀렸습니다.

이현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안목이 있으셨고, 이후 현대라는 기업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그렇지만 양궁과 관련된 영역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또 첨단 장비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었고, 그러자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선제대응’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대한양궁협회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병선 :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스포츠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저의 경험담이고, 현대에서 선제대응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다음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죠. 올림픽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 회장님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고 4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제대응이라고 해서 탁 이계 아니고, 런던 올림픽 끝나고 나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 4년이나 남았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하니 시행착오 겪을 것 미리 다 겪고, 새로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한 듯 안한 듯 자연스럽게 준비하자 그런 거였고요. 아까 간섭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회장님의 경우 먼저 아이디어를 줘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종목 같으면, 글썽요, 다른 종목을 폼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 이사회에서 그걸 검토를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회장님이 주신 방향은 맞는데 이걸 좀 바꾸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회장님께 보고를 드려요. 그럼 회장님께서 바로 수용을 해주시지요. 지금까지 현대기업에서 한국 양궁을 위해 약 500억 넘게 쓴 것 같은데요. 필요할 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협회는 경기

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요. 현대에서는 기술개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해줍니다. 현대와 협회가 멋진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키, 스케이트, 야구 이런 종목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경우는 비밀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하자고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미국 실리콘 벨리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오픈이 되어버렸는데요.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선수들이 쓴 활의 비파괴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기술인데요. 활을 엑스레이로 찍어버려요. 그럼 이 활이 지금 얼마만큼 썼는데 앞으로는 얼마 정도 쓰면 부러질 것이다. 또는 이 활 안에 균열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걸 관계가 없다. 요건 위험하다. 활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까지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또 활에는 손으로 잡는 그림이 있는데요. 선수마다 손 모양이 틀려서 일부는 테이핑 등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도 3D기법으로 생성하여 선수가 쓰는 그림을 딱 잡으면 그것을 다시 그대로 찍어서 3D로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 선수 활에 장착했어요. 회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죠. 교수님께서 기성 자동차를 단순히 구입해서 타는 것 대신, 교수님께서 핸들을 잡기 좋게 내리고 올리고 시트도 올리고 내리고 칼라까지 교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3D를 통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선수 입맛에 맞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 가는 거죠. 내 그림을 붙여버리니까 내손이 얼마나 편해요. 3D그림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 양궁은 현대자동차 연구소하고 미국 실리콘벨리까지 연결시켜서 개발하고 리우 올림픽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것은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계획하고 실리콘벨리 박사까지 불러서 우리에게 접목시켜주는 건 회장님의 열정 때문에 가능했지요. 회장님께서 다 하신 거죠. 우린 뭐 손도 못 대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면 자동차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가져오고, 또 우리는 사용하고 연구해서 다시 수정 내용을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리우 올림픽의 성과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휘 :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조직문화에서는 전폭적 지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구체적 성과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양궁협회에서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원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꾸준히 준수하면서 고급스런 성과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대한양궁협회의 지도자분들께서 단합해서 그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그러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윤병선 : 저절로 안 되는 거구요. 저도 양궁을 했고요. 제가 양궁의 거의 2세대 되거든요. 제 위에 선배들 몇 명 안 되고요. 초창기였으니까요. 회장사인 현대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지원하고, 경기인들은 그 책임감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방법이나 방향을 연구 개발하여 운영하고, 협회는 회장사와 경기인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회장사와 경기인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뭐라 할까 쓸데없는 기득권? 뭐 이런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양궁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원칙을 지키니까요. 협회에서는 회장사에서 내려보낸 것이든, 경기인들이 올려보낸 것이든,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방향 설정해서 이사회를 거쳐 재정립합니다. 어떤 기획안을 만들 때 절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검토하지요. 여기서 편향적 않다는 것은 회장사와 경기인이 아니라 선수 각각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협회는 어느 편도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토론하고 수정하고, 만약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면 이사회에서 수정보완하면 되는 거죠. 즉 보편타당성이 있는 안을 채택한다는 거지요. 솔직히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반대하는 게 현 세태 아닌가요?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냥 이유 없이 반대하잖아요. 그것을 없애 버리면 됩니다. 반대 의견이 있고, 우리도 잘못되었다 싶으면 안을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안을 검토해서 합당하면 채택하면 되죠. 내 뜻과 다르다 하여 대의를 버린다는 것은 잘못

이죠. 한국양궁의 발전과 세계정상 경기력 유지를 위한 발전적 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는 모두 이의를 달수가 없는 거죠. 사심을 버리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이현휘 : 그러니까요!

윤병선 : 저희는 그게 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현휘 :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거지요?

윤병선 : 그게 종목의 특성, 또는 조화로운 신뢰,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지요.

이현휘 : 종목의 특성, 신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왔지요?

윤병선 : 글썽요. 그건 한국 양궁이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발생적 마음도 이었겠지만, 회장님이 믿고 지원하는 만큼 경기인들도 정책에 따라 일치 단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 할까요? 협회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도 아우르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현휘 : 국장님께서서는 대단히 민주적인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병선 : 제가 아니고 협회 전체가 그런 거죠. 저는 뭐 양궁을 했잖아요. 어릴 때 훈련하면서 부터 내가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현휘 : 그런데 개인운동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윤병선 : 그렇죠. 개인운동이지만 선후배가 틀림없이 있지요. 좀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현재 최고령 선수가 40대를 넘어섰어요. 그 선수나 고등학교 1학년

선수나 선발전 때는 똑같은 자격으로 뛰거든요. 예외는 없어요.

이현휘 : 대한양궁협회에서는 당연한데,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윤병선 : 그러게요. 지도력이고 리더십 문제 아닐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20-30년 걸린 거죠.

이현휘 : 물론 20-30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나 20-30년 걸린다고 모두 대한양궁협회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윤병선 :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종목이나 어느 단체나 파벌, 학연, 지연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내 친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안을 발표를 해요. 여기는 찬성하고, 저기는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견을 수용해줘요. 그런 다음 찬성한 사람들을 설득시키죠.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 몇 명이 똑딱똑딱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연구검토해요. 그리고 의결을 하는 거지요. 자 반대파 의견이 맞다. 틀림없이 맞아! 옳아! 근데 반대하잖아요. 그걸 없애는 건 그 사람들의 몫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에 대한 신뢰를 구축을 해줘야 하는데, 신뢰구축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믿게 하려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무릎을 꿇든지, 석고대죄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내 편은 아니지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어느 정책이 시작될 때는 반대를 안 하잖아요. 시작을 해놓고 결과를 가지고 알가알부하잖아요. 동조를 해줬잖아요. 동조는 해줬지만 그때 또 평가를 해라. 그리고 평가를 할 때 평가 내용가지고 다시 또 수정 보완합니다. 다 집어넣어, 다시. 다시 또 믹서를 돌려. 거기서 나온 보편 타당성 있는 원칙에 입각한 계획을 내놔요. 그럼 또 이때는 반대파가 찬성을 한다고요. 그럼 반대파 이야기를 또 들어줘요. 그런 시행착오와 상호간 의견충

돌을 절충하고 양보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수 없이 많았던 거죠. 그게 20년 이상 걸린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싸웠죠. 경기장에 드러눕고 그러면서 경기 못하게 하고 그랬지요. 불상사도 있었지요. 있었지만 선배가 가서 ‘야 네가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지, 네가 당장 사과 따 먹으려고, 큰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잘 봐봐라. 이게 어느 것이 게 맞는 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다 절대 상대 안하지요. 징계도 먹고 다하지요. 시간이 흐르면 내년에 가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난 뒤에 물어보면 ‘내가 그 때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옳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설득하는 거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방법은 그것 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거죠. 즉 이건 누구를 위한, 한 사람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살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설득하면 결국에는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요. ...

이현휘 :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윤병선 : 그게 안 되는 건 이해를 안 하기 위한 반대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깨부수는 건 내가 먼저 거기에 가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일깨워 줘야 해요. 저는 탁상이론보다 현장 스타일이에요.

이현휘 : 감동적인 말씀이군요!

윤병선 :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합 때마다 항상 반대가 나와요. 그 반대하는 내용 있잖아요? 찬성파는 이만큼 있어요. 반대파 요만큼 있어요. 그리고 찬반작업을 내놔요. 여기는 다 이해를 해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OK, 내년에 그거 수용할 테니까 안을 제출해라.'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안은 처음부터 채택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요. 바로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꼭 후회 안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별반 차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야기 안합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게 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설득과 이해입니다. 그게 20-30년 걸린 거예요.

이현휘 :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국장님은 한국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하! 우리 사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윤병선 : 아닌데?! 나 한국사람 맞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 집행부가 그렇게 했지요.

이현휘 : 우리 사회에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병선 : 사실 저희가 특별한 일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선제대응하고, 원리원칙 고수하고, 협회 집행부를 공평타당하게 운영할 뿐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우린 그냥 아주 아무 것도 아닌 평범한 우리 길을 가는 것뿐이거든요. 누구나 가야될 길을 가는 것뿐이거든요. 특별히 뛰어난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상한 것처럼 되어있더군요.

이현휘 : 더 감동적으로 말씀하시네요! 하하!

윤병선 : 그렇잖아요. 저희 한국 양궁이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이성계가 십리 밖의 솔방울 씨를 쫓았다고 하는데, ... 뭐 ... 그래야만 잘 쏘나요? 하하하!

이현휘 : 대한양궁협회에서 합리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특정 스타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꾸준히 낼 수 없을 테니까요.

윤병선 : 사실은 저희도 십년, 이십년, 지금 30-40년 됐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100년이고 200년이고 현재에 이렇게 단합된 신뢰의 축을 중심으로 공정성이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국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사무국이 노력하는 내용들을 경기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협조해주고 도와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장담은 못하죠. 앞으로 10년, 20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크면 우리 세대 때 하고는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럼 전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개인편향주의가 팽배해 있으니깐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건 거기에 맞게 협회가 빠르게 대처해야 하죠. 수정을 해줘야 해요. 선수 유니폼 중 여자들은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초미니 입고 다녀요. 선수들이요. 다 수용해줘요. 원칙은 고수하지만 흐름에 맞는 정책은 따라가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우리가 이번 처음 나갔는데 선수들이 조언을 해줘요. ‘왜 선수들 치마 못 입게 해? 지금 시대가 어느 텐데요? ...’ 그럼 우리는 ‘오케이, 수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반대표 나와요. ‘얕는 게 불편하고 ...’ 선수가 불편하면 안 입으면 되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흰색을 고수해요. 시합 나가면 아래 위가 다 흰색이에요. 저희 한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세계연맹에서 규정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요. 직접적인 경기력 방해요소가 아니라면 응용해서 적용합니다.

이현휘 :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적 협회 운영 방식, 즉 조정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대단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대한양궁협회에서 그런 민주적 덕목은 어떻게 터득한 것인가요?

윤병선 : 터득이 아니라 기본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의 같은데 가면 꼭

양궁을 기준으로 물어보더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끝까지 해봐야지요. 내가, 우리 직원들도, 회장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다 해 놓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오픈하는 거지요. 누구라도 평가하도록 말입니다.

이현휘 :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잘 안하잖아요.

윤병선 : 근데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아주 기본만 하고 있는데요.

이현휘 :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독특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하하!

윤병선 : 글썄요,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양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베이스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데에서 베이스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걸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 양궁이 남들 모르게 몰래 가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모르는 초특급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의 방법이라든가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보조 훈련이라던 가는 매년 새롭게 개발을 하지요. 우리가 하고 나면 그 정보가 그 다음 주에 일본이나 미국에 가요, 우리 자료가요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전화로 알아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앞서서 갈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요. 만약에 아주 진짜 간단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리우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 할 만큼 다 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거지요. 하지만 저희는 다음 목표를 다시 확실하게 설정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좋은 성적을 거두든, 나쁜 성적을 거두든, 거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현휘 :국장님께서 양궁을 오래하시는 동안 영국의 문화 같은 것이 국장님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윤병선 : 사실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 양궁이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영국 양궁을 배운 건 아니에요. 양궁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양궁을 일본에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우리 양궁은 일본보다 약 40-50년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만에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뒤집어 버리면서 한국형 양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양궁이 영국에서 시작된 종목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형이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자꾸 따라오고 모방을 하잖아요. 기본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양궁 기술은 없어요. 모방을 했어도 못 쓰는 기술은 아니에요. 평상시 다 써요. 요걸 조금 더 보완해서 매끄럽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 손맛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김치도 손맛이 최고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치들과 선수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신체적인 구조나 느낌에 맞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적의 테크닉을 체득하는 거죠. 걸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은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걸모습은 색칠해 놓으면 똑같지만 어떤 거는 카본이고, 어떤 거는 알루미늄이고, 어떤 거는 철근이잖아요. 자전거 차체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장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 튜닝이라는 고급기술이 있어요. 튜닝이란 화살을 정확하게 날려 보내고 오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튜닝 기술은 물론 당연히 한국이 최고입니다. 또 외국과 다른 점은 일본도 그렇지만 저희는 시스템 자체가 벌써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화 된 것을 이태리, 프랑스, 영국 등이 모두 따라 하려고 했지만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양궁이 시작 된 때가 1970년대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안보체육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 양궁은 학교 체육으로 시작했어요. 학교 체육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안보체육이라고 해서 전국 9개 시도에 있는 최고의 명문여고, 경주는 경주여고, 부산은 부산

중앙여고, 서울은 서울여고, 홍성은 홍성여고, 대전은 대전여고, 이렇게 최고 명문여고에 양궁팀을 창설하도록 문교부에서 지시를 했어요.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이게 바탕이 되었지만, 지금은 초, 중, 고, 대학, 일반까지 정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성인 경기는 안 시킵니다. 외국에서는 활만 잡으면 성인 경기 시키거든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전 세계에 없는 종목으로 경기를 해요. 기본기 시험만 시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절대 성인 경기를 못하게 만들어 놔어요. 장비도 외제는 못 쓰게 만들어 놔어요. 국산품 애용인데, 국산품 사용규정이 약 25년 된 거 같은데, 지금도 묶여져서 안 풀어줍니다. 하하하! 우리는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외국산 장비를 못 쓰게 막아놔요. 최초 목적은 국산품 애용이고, 두 번째는 국산제품 개발이고, 셋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은 성장 발육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급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기본기, 기초 기술만 익힐 수 있는 경기방식을 택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현휘 : 그런 결정은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 정하는가요?

윤병선 : 이걸 2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사회 논의를 거쳤죠.

이현휘 : 그렇군요!

윤병선 : 그럼요.

이현휘 :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하는군요.

윤병선 :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해드리면 이사회에서 불합리한 게 없다 싶으면 통과시켜주죠. 냉정하게 표현하면 중학교 선수만 해도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인 경기를 할 필요가 없다. 왜? 아직 성장 발육단계이고, 몸이 덜 성숙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성인 경

기를 해버리면 선수 생명이 빨리 끝난다. 기본기를 갖추는데 만 보통 5-6년 걸려요. 우리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현휘 :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의 입시학원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윤병선 : 그게 미친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은 기본기, 기초기술만 해야 합니다. 기초기술에다 성인 경기 1:1 매치게임을 접목시켜주되 맛만 보여줘요. 접목을 시켜주는데, 전적으로 선수에게 주지 않고, 기본과 기초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인 경기를 시켜줘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병행을 하죠, 저희가. 또 하나 선발종목의 비밀이 뭐냐 하면 외국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리우 올림픽이 8월에 끝났어요. 저희는 9월 달에 선발전 시작했어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약 6-7개월 소요되는 선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해는 6개월 걸리고 어느 해는 7개월 걸려요. 목표대회가 전반부에 있으면 짧게 하고 후반부에 있으면 선발전을 길게 해요. 근데 9월부터 선발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선발전을 할 때 저희는 1년 치 대회 중에서 모든 대회에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특정 선수, 전 대회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현휘 : 와! 정말 멋있군요!

윤병선 : 올해 1년 동안 시행하는 대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비바람 칠 때 1등한 선수하고, 날씨 좋을 때 1등한 선수하고 기록 비교해보면 확연히 틀려요. 하지만 1등 했다는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1등한 거잖아요. 어쨌든 각 종목별, 대회별 고등부 대회, 일반부 대회, 대학교 대회, 1년 뒤에 참가한 대회 중에서 기준 기록을 만들어 줘요. 기본적으로 기본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선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64명을 선발합니다. 그 전에 약 120명의 선수

들이 시합에 나가요. 그건 기준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120명 정도의 선에서 보는 거예요. 120명이라고 말씀드린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느 해는 10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11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경기력이 높은 해도 있고, 낮은 해도 있거든요. 어쨌든 남녀 각각 120명의 선수를 선발을 해요. 이게 1차 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선수들인데, 여기에서는 무한경쟁을 합니다. 뭐 여기서 기본 틀만 짜주면 기본 틀 안에서는 무한경쟁하지요. 이 중에서 64명을 뽑아요. 64명을 가지고 2차 선발전을 해요. 2차 선발전을 해서 32명 뽑고, 16명 뽑고, 차근차근 다 걸러내요. 처음에는 기본경기력, 그 다음에는 매치게임, 1:1 대결능력, 그 다음에 다시 동계훈련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죠.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이잖아요. 거기부터는 이제 자기 관리지요.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내력도 키워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관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력 싸움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력을 계속 지켜가야 되니까 지구력 싸움이지요. 지구력을 유지해서 자기 경기력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7개월 동안 요게 다 선발전 마다 숨어있는 요소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굳이 설명을 잘 안하거든요. 기본 경기력 테스트, 1:1 매치게임, 자기관리, 지구력, 승부, 1:1에서 승부근성, 마지막이 승부근성이예요. 그런 요소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선발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추가되었는데요. 이때는 경기력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요때는 선수끼리 이질감을 해소하고 1:1매치게임을 통해 능력을 키워야 된다. 뽑힌 선수들이 겨울동안 자기관리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인내력 키워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나면 승부근성을 키워야 된다. ...

이현휘 : 역시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그런 결정을 하겠지요?

윤병선 : 이걸 한지가 오래 된 거지요. 지금도 당연히 방법을 검수하지요.

이현휘 : 국장님께서서는 처음에 그런 착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년들 성장기에 맞는 양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윤병선 : 글쎄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협회 집행부가 한 거지요. 제가 특별히 생각한 건 아닌데, 양궁은 유소년, 청소년, 후보 선수, 주니어, 상비군, 대표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아마도 우수 선수 단계별 육성체계는 양궁이 제일 빠를 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시작했어요. 체육회도 하지 않았을 때 유소년과 청소년 육성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체육회와 체육부에서 꿈나무, 청소년 선수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협회의 목표와 목적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유소년 선수들이 전문기술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 기술을 발휘하면 얼마나 발휘하겠어요. 유소년은 초등학교 선수들이에요. 저희는 전문기술을 절대 훔내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시험도 기본기만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유소년 대표로써 대표 팀과 똑같은 유니폼과 장비를 지급해주고, 성장 발육기에 있는 선수니까 자율적으로 팀에 맡겨요. 중학교 진학해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면 일 년에 한 번씩 모아서 기술 지도만 해줘요. 유니폼 주고 장비 주고 그 대신 똑같은 장비를 줘요. 초등학교 6학년들 5학년들 대표팀 유니폼 입고 다녀요. 동네 그냥 입고 다녀요. 그거 하나로 이 아이는 그게 성장인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손가락이 어쩌니 골격도 덜 여문 어린선수들에게 땅겨라 밀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성장 발육기에 맞게 훈련을 해주는 것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현휘 : 그런 착상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윤병선 :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단지 한국사회가 성적지상주의로 몰아가니까 일선 현장지도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

이현휘 : 너무 놀랍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병선 : 평소 그렇게 해놓고 시험 때 유소년들 모아놓고 이 선수들이 앞으로 한국 양궁을 짊어질 차세대 유소년 대표 선수다. 많은 초등학교 선수들 앞에서

10명이 인사를 해요.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이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부심에 자긍심에 최고의 기분을 느끼겠지요. 시합 때 유소년과 청소년들은 대표팀 유니폼 입고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유소년과 청소년들한테 긍지를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이거죠. 경기력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중학교 올라오면 1년에 한 번 합숙을 시켜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1년에 두 번 합숙을 시켜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좋은 길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이사회에 보고 드리면 ‘하세요. 예산은 줄게요.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이니까요?’ 그러니까. 특징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내세우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는 내용들이니까요.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이현휘 : 네, 말씀 들어보니 너무 놀랍네요!

윤병선 : 다 각 현장에 있는 이사 분들이 하는 거지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휘 :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을 연구해야 되는 거였군요!

윤병선 : 나 정신병자 아니에요. 하하하!

이현휘 : 하하하! 정신병자가 아니라요.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직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병선 :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요. 제가 선배이기도 하지만 양궁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어난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심판을 안 괴롭히겠습니까? 그걸 사전에 막는 거죠. ‘자 이리 와봐, 둘 다 와봐.’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감정이 격하면 어느 누구든지 주먹부터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걸 예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같이 불러놓고 앉혀놓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조화롭게 이해하고 한발

물리서고

이현휘 :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고 싶은데요. 서양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퓨리티즘의 전통이 강했는데요. 그 전통에서는 초월적 신에 헌신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토론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⁴⁾

윤병선 :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태리인가 호주인가 시합을 갔는데요. 무슨 시합인지는 잘 기억되지 않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개회식을 시작하려는데 회장 같은 분이 없어요. 이상하다했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회장은 이미 벡타이 메고 주변에 부회장이나 이사가 수행을 하면서 선수를 격려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골프 카 있잖아요. 시설물 세워놓은 경기장 쪽에서 골프 카 타고 누가 오는데 복장이 완전 일꾼이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더니 창고 같은 텐트 밑에 가더니 자켓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회장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반이 회장인데, 회장이 직접 현장 시설물을 다하고 있었고, 시간이 되니까 와서 옷만 입고 예의를 갖추고 개회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요. ... 시상식 때는 전년도 우승자와 같이 골프 카 타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대회를 마치는 폐회식 때는 회장이 직접 먼저 뛰고, 당신이 소시지 굽고, 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에게 호주 특제라면서 주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회장님! 그럴 텐데, 그네들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결국 그 차이는 그러니까 회장과 선수, 회장과 임원이 아니고, 선수와 지원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 보고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현휘 : 서양에서는 퓨리티즘의 전통에서 합리적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대한양궁협회에서는 퓨리티즘의 지원이 없었는데도 서양의 합리적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자

4) Cf. 이현휘,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미국의 민주적 토론 정신,” 363-405.

생적으로 정착시켰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서 지금과 같은 합리적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국장님께서 산과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군요.

윤병선 :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사 분들이나 양궁인들이 하는 일이지요.

이현휘 : 겸손한 말씀이시군요.

윤병선 :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거는 우리가 일부 몇몇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휘 : 대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요.

윤병선 : 초창기만 해도 우리 양궁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도자끼리 돈 모아서 겨울에 경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양궁 경기는 겨울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할 게 뭐냐. 지도자들이 돈을 모아서 겨울에 실내경기를 개최해주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돈 내서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다 무보수예요. 내 돈으로 대회를 치루는 거지요. 전국에 있는 지도자가 다 모여요. 상무 같은 데에서 실내체육관을 빌려요. 거기다 겨울철에 경기력 누수를 좀 방지한다는 차원이지요. 처음에는 열악했지만요. 우리가 상품 만들고, 트로피 만들어 주고, 그 뒤로 우리 협회에서도 지도자들의 생각이 참 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한국 양궁의 지원군은 바로 현장 지도자들이예요. 서로서로 밥을 먹어도 돈을 아껴먹고, 방을 써도 나이가 60정도 넘고 그러면 나이 연배 같은 사람끼리 같이 쓰고 그럼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양궁협회는 돈을 쓰는 단체니까 그런 개념이 있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불평불만 안하고, 무조건 2인 1실 그렇게 하니깐, 서울근교에 사는 선배들은 집에서 다니도록 하고 선배들이 먼저 술선수범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비 내에서 우리가 대회를 치러주었지요. 처음에는 무료봉사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거고, 그런 거예요. 하하하!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군요.

이현휘 : 아닙니다. 여기에도 조직문화, 협회문화가 분명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의 다른 곳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한양궁협회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윤병선 : 지금 이곳 협회 사무실에서 보시듯이 직원 모두의 책상 크기가 똑같아요. 그건 개념 차이예요. 책상이 더 크다고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현휘 : 그런 개념은 어디에서 생겨났지요?

윤병선 : 우리 선수들이 하는 거지요.

이현휘 : 국장님한테서 그런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지요?

윤병선 :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임원들도 다 똑같아요. 이거 치우고 책상 크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현휘 : 양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독특한 개성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컨대 매너를 지킨다든지, 양보를 한다든지

윤병선 : 당연히 있지요.

이현휘 : 물론 양궁 하신 분 개인의 개성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양궁 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단체도 그와 유사한 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선 : 이게 스포츠 집단이잖아요. 선후배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한테로 지연, 학연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걸 냉정히 바라보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이거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양궁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여

기서 이야기하면 싫어도 ‘예, 할게요.’ 그리고 말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따지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윗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누구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게 최소화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왜 파벌이 없고, 왜 학연이 없겠어요. 있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만 갈 뿐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도 시합장 가면 진짜 말 그대로 애들 오전에 시합하고 감독도 코치도 쉬어야 하는데 오후에 심판 좀 하라고 하면 ‘쉬어야 하는데’라고 농담은 해요. 하지만 가서 옷 갈아입고 와요. 그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심판을 보는 거는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양궁을 위한 거고 양궁 자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 남들이 볼 때도 ‘저 지도자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일해야 되네, 고맙네!’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많아요. 그게 만들어져야죠. 사무국이라는 게, 협회라는 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임무가 있죠.

이현휘 : 아까 런던 올림픽에 선발된 선수의 컨디션 난조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국장님께서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셨어요?

윤병선 : 저는 교체하는 건 절대 불가라고 했어요. 제 생각은 무조건 다시 살아난다. 그게 왜냐하면 개가 7개월 거처서 선발된 선수잖아요. 틀림없이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고요. 경기력이 깨 박살 난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희대 산부인과랑 협약을 맺어서 시합 때를 맞춰서 이 선수는 생리할 때 경기력이 떨어진다. 인위적인 거긴 하지만 안 좋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뒤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해봐. 그래서 맞춰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해드렸죠?

이현휘 : 런던 올림픽에 선발된 선수의 컨디션 난조 상태에서 대한양궁협회의 원칙을 준수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병선 :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선수가 장장 7개월을 거쳐서 기본기, 지구력, 다 테스트 받아서 선발되었는데, 지금 경기력이 막 떨어진지가 한 보름 이상 됐을걸요. 보름이 뭐야 20일도 넘었겠다. 완전히 중학교 수준으로 폭락한 거예요. 떨어진 게. 근데 그때 당시 코치가 여주시청 감독이었는데, 그 지도자도 ‘교체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 반박했습니다. ‘네가 책임진다고? 애 쓰는 것을 좀 봐봐 ...’ 지금 생각해도 휴~. 쓰는 걸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이고 순간적인 슬럼프가 왔을 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 선수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걸 풀어주는 방법 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붙이고 상담하는 거예요.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반대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선수가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강화위원 같은 경우는 선수가 미워서라기보다도 경기력이 저하되니까 이 상황이라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뿐이지요. 결론은 대부분이 대표 지도자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걸로 이야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못했어요. 큰 일 나요.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믿어보자, 기다려 보자 그랬습니다. 물론 런던까지 가서도 우린 난리를 쳐서 하루 전에 선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비선수를 데리고 갈꺼냐 말꺼냐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날 선수의 컨디션이 살짝 회복되었고,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제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성공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실패했다면 협회 집행부 전부 죽음이죠. 하하하!

이현휘 : 실패했더라도 선수는 메달을 딸 수 없었지만, 대한양궁협회의 합리적 시스템은 구제할 수 있었겠지요.

윤병선 : 저희는 이제 믿음의 스포츠, 신뢰의 스포츠가 바탕이 되었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수 있고 가능한 얘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수를 믿고 지도자를 믿는 것이 최우선 이었습니다.

이현휘 : 장시간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차례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건국 초기에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때 미국에 연방

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보스턴 타운미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회의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했고, 유능한 사람들이 현명한 발언을 했으며, 그 발언이 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능한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⁵⁾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양궁협회의 회의 운영 방식은 보스턴 타운미팅의 민주적 토론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윤병선 : 제가 보는 관점은 유명인, 저명인, 또는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곧 진리고 법은 아니거든요. 저변에 있는 생각들을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바라보는 눈을 양궁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온 결과라는 거지요.

이현휘 : 요즘 우리 사회에 편재된 토론 문화를 고려할 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시군요.

윤병선 : 회장님의 제안과 이사회회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협회는 자료를 만들어 추진될 계획과 방향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요. 어떤 문제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연구 검토하여 거기에 수정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현휘 : 그러니까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병선 :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회장님이 의견을 주시거나 제안하시면 그 배경을 먼저 생각하고 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먼저 해보죠. 상식적으로 회장님이 나쁜 쪽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맙게 받아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말이 선제대응이지 실제 그 선제대응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앞서가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5) Cf. 이현휘,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미국의 민주적 토론정신,” 386-387.

우리가 찾아서 가는 거죠. 회장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시고 괜히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이현휘 :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근대혁명으로 평가되는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을 거치면서 대단히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한국에서도 합리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는 것 같습니다.

윤병선 : 솔직히 저는 한국양궁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는 부단히 노력했죠. 제가 협회에서 근무한지가 올해로 32년차인데요.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이 양궁이라는 종목의 특수성도 있지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서 양궁인들이 노력했던 거는 사실이겠죠. 특히 우리가 여기에 상응하는 경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책임감 내지는 의무감이 양궁인의 가슴에 있다는 거죠. 어떤 고마움에 대한, 열정적 양궁 사랑에 대한 보답이랄까요? 자연발생적으로 그게 생긴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 초창기에는 희생적으로 공부했죠. 사실 저희도 처음 운동할 때는 학교 선생님 즉 감독님들이 우리보다 더 몰랐어요. 활을 쏘 보신 분들이 아니라 학교 체육 선생님이 감독을 하신 거죠, 그냥. 그런 분들까지 연구하고 노력하셨죠. 저희 운동할 때는 양궁을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양궁한다고 하면 먹고 노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강화훈련하고 체력훈련 하고 진짜 하는 거 보면 아마도 혀를 내두를 거예요. 많이들 고생하셨죠.

이현휘 : 비인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병선 : 그렇죠. 비인기 종목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했지만 회장님께서 국제경쟁력을 알아보고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주신 것이 오늘 한국 양궁이 성공 한 계기였죠. 솔직히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양궁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 방식의 변경은 한국

견제의 목적보다는 스포츠로 살아남기 위한 세계 양궁의 흐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한국 양궁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따라 붙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대응적 정책이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면 다른 국가는 한국의 앞선 내용이나 우리가 한 걸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한발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선제대응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요.

이현휘 :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서 학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 것을 카피해서 그냥 따라가는 식인데, 대한양궁협회는 그런 패턴을 답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병선 :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 그걸 배워서 내 것을 만든 다음에 한 숨 쉬고 있으면 한 물 갔잖아요. 이게 그 차이죠. 뭐, 앞선 학문이라도 우리가 증명하고 연구하여 맞는구나 하고 한숨 쉬며 부러워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다시 한발 앞서 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현휘 : 대한양궁협회에서 선제대응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니까 외국에서 따라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출신 양궁 지도자가 외국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죠?

윤병선 : 한때 가장 많을 때는 거의 30여명 가까이 외국 지도자로 나간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년 같지 100년 같지 모릅니다. 한국 양궁의 세계 최고 경기력을 계속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한국양궁의 훈련방식, 특수훈련, 특별훈련, 전문기술 등이 모두 다 오픈되어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번지점프 그걸 왜 합니까? 양궁에서 말입니다. 그리스에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초대교회 있는 곳 가기 전에요. 그 운하가 상당히 깊어요. 지중해하고 연결된 곳이고 배가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번지점프를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겁나서 못했어요. 못해요 못해. 생명을 같은 고무

줄 있는데 중간 중간 뜬어진 곳도 보이고, 또 운하를 내려다보면 겁이 나서 떨리더라고요. 진지훈련 가서 우리 선수 6명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망설이다가 뛰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자 선수 중 제일 먼저 뛰어내린 선수가 우승하고, 두 번째 뛰어내린 선수가 2위를 했어요. 당연히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하겠지만, 그걸 하면서 애들도 울고 난리가 났었지요. 못 뛰다고.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위험부담도 생각해야 했는데 그냥 실행한 거죠. 그리고 박성연이 뛰었어요. 뛰고서 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킁킁한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보이는데요. 그리스의 아테네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구가 암굴처럼 킁킁한 지하도를 약 15미터쯤 지나가야 되는데요. 불은 켜 있지만 그걸 나가는 순간에 보이는 타원형 경기장 문이 보일 것 아니에요. 그때 그 빛이 자기 뛰어내릴 때 본 빛이랑 똑같대요. 느낌! 번지점프 하던 그 순간의 느낌과 너무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현휘 : 선수들이 시체 옆에서 피자먹는 것과 같은 극기 훈련을 하고 나면 달라지나요?

윤병선 : 극기 훈련 자체가 경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이 정신력을 강화하고 인내심을 길러줘서 경기력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솔직히 선수들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 훈련을 왜하느냐고 하는 것보다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더 강인한 근성이 생길 거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죠. HDI가 특수훈련을 하는 데가 있어요. 훈련과정 중 극기 훈련의 일종으로 포함되지만 담력 훈련이 중점인데 약 2시간 밖에 안 걸리는 훈련입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손이나 발 등의 촉각과 감각으로 입구를 찾아 나오는 코스입니다. 내가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고 난 선수들은 세상에서 못할게 없을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훈련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아요. 선수들 스스로가 요령을 안 피우게 되지요. 우리는 강제로 훈련시키는 거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거의 자율이예요. 아까 제주도 1100번 도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겨울 훈련이고, 한여름에는 문경 쪽에서 문장대를 시작으로 청주까지 한여름 제일 더울 때인 8월 초에 걷기 훈련하죠. 봉고차에 몰수

건 신고 따라 가요. 그러면 한 명씩 걸어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시원한 계곡 그늘 밑에서 놀고 있죠, 수박 먹고 있죠. 그들이 볼 때 재네는 모야? 이 더운 날에? 그럴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오로지 조선 오이하고 초콜릿만 가지고 가요. 상상해보시죠. 선수들 기분이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참고, 견디고, 자기성찰하려는 힘겨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밤에 걸어가는데, 훈련하는 것, 바다에 처박아 놓고 내일 아침에 보자하고 나와 버리는 것 일반인들은 상상 못 할 거예요. 과연 양궁에서 저런 훈련이 필요할까 그러실 겁니다.

이현휘 : 이사회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을 한 번 보고 싶군요.

윤병선 : 이사회 별거 없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민주적인 토론을 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집행하는 기구예요. 전국 시도의 전무이사를 비롯해 메달리스트 여성 양궁인 등 신 구조화와 지역을 안배해서 이사회를 구성하죠.

이현휘 : 우리는 회의를 하면 할수록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윤병선 : 자기 개인적 이해득실과 연결시키는 게 문제이겠지요.

이현휘 : 그래서 안 되잖아요.

윤병선 : 무조건 안 되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외국으로 나가있는 코치들 어떻게 대우받고 있을까요? 이미 한국에는 지도자 자리가 포화 상태이다 보니 외국으로 나가서 지도하게 되는데요. 외국팀에 나가 있는 한국코치들 만나면 농담반 진담반 이런 말들을 자주해요. ‘국장님 우리 이번에 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네 맘대로 지나? 말이 되냐?’ 하지만 한국 양궁이 계속 세계 최고이어야 해외에 나간 지도자들이 계속 대우 받는다는 거죠. 맞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지도하는 선수가 한국선수 이기면 속으로 얼마

나 좋겠어요. 최고의 선수를 이겼는데, 안 그래요? 당연히 꼭 이겨야 돌아가면 워신도 서고 유능한 지도자로 우러러 보지 않겠어요? 역설적으로 다른 종목 사무처장들하고 가끔 이야기해보면 다른 종목은 외국에 나간 코치들이 한국 잡으려고 생난리라고 웃으며 이야기 합니다.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속마음은 다르겠지만 그들이 지도하는 양궁 팀은 한국 팀에겐 무조건 지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어도 진다고 해요. 한국 양궁이 계속 세계 최고 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도 외국에서 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실제로 저주거나 봐줄 수는 없지만 의식 개념이 다른 차원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 이해득실을 떠난 거잖아요. 한국이 무너지면 한국 지도자를 외국팀 지도자로 영입할까요?

이현휘 : 정말이지 대한양궁협회에서 구축한 합리적 시스템이 대단하군요.

윤병선 : 표현상 인터뷰라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집행부나 양궁인들이 평범하지만 개성 있는 한국적 개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30년 동안 현대가 양궁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끌어 가면서 어떤 권리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에만 집중해주는 그 마인드에 모두 깊은 감사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을 해주면서도 국내 시합에 광고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이현휘 : 다른 곳에서는 내세우려고 할 텐데요.

윤병선 : 기아차가 빙상 선수들 유니폼 광고하잖아요. 양궁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현대기아차의 깊은 곳까지는 모르지만 진짜 생색내려고 후원하고 폼 잡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양궁에서는 없다고 봐요. 한마디로 내실을 기하려는 것이지요. 시합 끝나면 선수들 회식시켜주고, 기념품 사주고, 최신 전자제품 사주면서 공부하라 하고, 특히 테블릿 PC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선수단에 사주면서 앞서가야 한다고 하셨죠. 선수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챙겨 주니까 선수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되는

것 같아요.

이현휘 : 오늘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윤병선 : 별말씀을요. 양궁 자랑만 했는데요.

이현휘 : 엄청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병선 :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영웅입니다.’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죄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잖아요. 자식한테 건, 부모한테 건, 내 선생에게 건 그렇지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세상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현휘 : 고맙습니다.

윤병선 : 한참 하다 보니 양궁자랑만 했네요. 양궁인 뿐만 아니라, 지원해주시는 회장님 산하, 이걸 계획하고 집행하는 이사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이 개인적 이해득실을 떠나 한국양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계최고의 경기력 유지하는 비결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얻어진 결과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현휘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